

폭염·폭우에...광주·전남 물가 상승률 3%대 올라

광주 3.5%·전남 3.0% 상승...사과 30.5% 등 과일 13.1% '껍충' 석유류 11.0% 내려...한은 "9월 상승률, 8월과 같거나 높을 듯"

지난달 광주와 전남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폭염·폭우 등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석유류 물가도 작년 높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달보다 상승 폭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됐다. 광주는 전국 평균인 3.4%를 상회하는 등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IMF 이후 전달보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광주는 3.5%, 전남은 3.0% 올랐다. 광주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2%에서 6월 2.6%, 7월 2.2%로 내려앉았으나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 전남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6월(2.0%)부터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광주의 물가상승률은 전달(2.2%)과 비교해 1.3%포인트 경종 뛰었다. 이는 IMF로 힘겨워하던 지난 1998년 1월(1.7%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 역시 전달(3.0%)보다 1.4%포인트 오르며 25년 여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을 기준으로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

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과일 물가가 1년 전보다 13.1%나 상승했다. 지난해 1월(13.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품목별로는 사과(30.5%), 복숭아(23.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채소류는 작년 폭염에 따른 높은 물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 하락했다. 다만 전달과 비교하면 16.5% 올랐다. 석유류는 11.0% 하락했다. 7월까지 계속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지난 7월 중순 이후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면서 전달(-25.9%)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도 -0.6%포인트로 전달(-1.5%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축소됐다. 전기·가스·수도는 21.1% 상승하며 전달과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 서비스 물가는 3.0% 상승했고 이중 개인 서비스는 4.3% 상승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2022년 2월 4.3%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5.3% 올라 2021년 12월 4.8%를 기록한 뒤로 가장 낮았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농산물값 상승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9% 상승했다. 올해 3월(4.4%) 이후 최대 폭이다. 이중 식품이 4.7%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5.6% 상승했다. 올해 3월(7.3%)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9% 상승하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달과 마찬가지로 3.3%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당국 예상보다도 높았다.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물가에 3.4% 상승한 것에 대해 "8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석유·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승 폭이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작년 9월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만큼 올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8월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4분기 이후에는 수요 측 압력이 둔화하면서 개인서비스 상승 모멘텀(동력·동인)도 약해지고, 작년 4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때문 기저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우리 수산물 먹고 어촌으로 휴가 갑시다"

소비 촉진 캠페인 참여

광주은행은 5일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참가자에게 지목된 후속 릴레이 참여자는 어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수산물 이용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2명 이상의 후속 챌린저를 SNS 등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지목을 받은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수산물로 온 가족 몸보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아 캠페인에 나서게 됐으며, 후속 주자로 방성민 부산은행장과 황병우 대구은행장을 추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수산물에 더욱 관심을 가져 어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MSPO 2023' 첫 참가

'수소 ATV 콘셉트카' 공개...소형 전술차량 4인승 카고 트럭·박격포 탑재차 등 전시

기아는 5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MSPO 2023'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한 MSPO 방산전시회는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기아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를 확정했다. 올해 기아는 유럽 지역 최초로 '수소 ATV(수소 동력 경전술차량) 콘셉트카'를 공개하고, 소형 전술차량 '4인승 카고 트럭'과 '박격포 탑재차'를 함께 전시한다. '수소 ATV 콘셉트카'는 기존 엔진 구동 ATV 콘셉트카를 수소 동력을 활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차량으로, 저소음 기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친환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 소형전술차량 '4인승 카고 트럭'은 기존 카고 트럭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선보이는 차량으로 병력 운송과 무기 운반이 동시에 가능한 적재함을 장착하고 있어 다양한 전력 활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형전술차량 '박격포 탑재차'는 기아의 캡사시 트럭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으로 특히 사용



'MSPO 2023' 기아관에 전시된 차량들. 왼쪽부터 수소 ATV 콘셉트카, 소형전술차량 박격포 탑재차, 소형전술차량 4인승 카고 트럭. (기아 제공)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를 적용할 수 있어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한편, 기아의 소형전술차량은 225 마력 엔진, 8단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16년 양산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 이동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관계자는 "이번 MSPO 2023에서 수소 ATV 콘셉트카, 소형전술차량 등 탑재자와 환경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미래형 특수차량을 선보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적용한 특수차량을 개발함으로써 방산 선도기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개인 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월 10만원부터

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형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조장기 투자자를 국민에게 제공해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형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귀뚜라미 '우수디자인' 최다 선정

카본매트·창문형 에어컨 등 6종

냉·난방 제품 전문기업 귀뚜라미의 다양한 제품들이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을 인정 받았다. (주)귀뚜라미는 5일 자사 제품 6종이 '2023년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선정된 제품은 보일러와 카본매트, 캠핑매트, 창문형 에어컨 등으로 업계 내 최다 품목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대표 디자인 어워드이다. 최근 2년 내 국내외에서 판매 증가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 가운데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 인증 마크인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선정된 상품 6종은 ▲귀뚜라미 보일러 L시리즈 ▲귀뚜라미 카본매트 3종(98, A, C) ▲귀뚜라미 캠핑매트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이다. 귀뚜라미 보일러 L시리즈는 슬립하고 안정감

은 디자인과 부피를 최대한 줄인 콤팩트한 외형으로 실용성과 안전성으로 더했다. 귀뚜라미 카본매트 온돌 98시리즈는 디자인에 역점을 둔 제품으로 엠비엔트 라이트를 탑재해 고급스러운 침실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탈착형 스마트 리모컨으로 전원 조절이 가능하고 이지 커넥터를 탑재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으로 조작성도 높였다. 귀뚜라미 캠핑매트 온돌은 겨울철 캠핑 환경에 어울리는 아웃도어 콘셉트 디자인으로 한 손 크기 온도조절기와 미끄럼 방지 패턴과 걸이식 손잡이를 적용했다.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은 격자 모양 패턴으로 제작돼, 다양한 실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현대적 감성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기존 에어컨 제품과 다르게 냉방 토출구가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앞으로 출시할 상품도 최고의 성능과 효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 공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내 300대 기업 고용 '정체'

6개월새 700명 줄어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의 직원 수가 최근 6개월새 700명가량 줄며 정체 흐름을 보였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주요 10개 업종별 매출 상위 30개 기업씩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요 3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용 인원은 108만5399명으로 1년 전(106만7237명)보다 1만8162명(1.7%)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108만6119명)과 비교하면 7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XO연구소는 "올해 하반기에 경영 실적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고용 여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300대 기업 중 최근 1년 새 직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직원 수는 12만4070명으로 1년 새 직원이 6166명(5.2%) 늘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직원 수도 3만595명에서 3만2217명으로 1622명 증가했다. 현대자동차(847명 ↑), CJ프레시웨이(801명 ↑), 현대오일뱅크(630명 ↑), 티웨이항공(541명 ↑), 삼성물산(525명 ↑), LG화학(502명 ↑) 등도 1년 새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 늘었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1년 새 직원이 1065명 줄

었다. 이마트(952명 ↓), KT(746명 ↓), LG전자(594명 ↓), 네이버(567명 ↓), 롯데쇼핑(556명 ↓) 등도 500명 넘게 직원 수가 감소했다. 성별 고용 현황을 보면 300대 기업의 남직원원은 작년 상반기 79만1849명에서 올해 상반기 80만1921명으로 1만72명 늘어났다. 증가율은 1.3%였다. 같은 기간 여직원원은 27만5388명에서 28만3478명으로 8090명이 증가했다. 여직원의 고용 증가율은 2.9%였다. 300대 기업 전체 직원 중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5.8%에서 올해 상반기 26.1%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고용 인원 중 여직원 비중이 50%를 넘긴 기업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82.18(-2.37)
↑ 코스닥	921.48(+2.32)
↑ 금리(국고채 3년)	3.770(+0.032)
↑ 환율(USD)	1330.60(+10.80)